≪入蜀記≫의 註釋과 飜譯(1)

李 銀 珍*

<목 차>

1. 서론
2. ≪入蜀記≫ 소개와 번역 의의
   2.1 陸游와 ≪入蜀記≫
   2.2 ≪入蜀記≫의 번역 의의
3. ≪入蜀記≫ 주석과 번역
4. 결론

1. 서론

陸游(1125~1210)는 1169년 음력 12월에 夔州 通判으로 부임하라는 명을 받았으나 건강상태가 좋지 않아 이듬해 여름 먼 길을 떠날 것을 계획했다. 1170년 5월 18일 저녁 고향을 출발한 육유와 그의 식솔들은 그해 10월 27일 새벽이 되어서야 목적지에 도착한다. 그가 배를 타고 長江을 거슬러 올라간 이 158일간의 여정을 기록한 글이 바로 ≪入蜀記≫이다. 지금처럼 교통이 발달했을 리 만무한 南宋 시대를 살았던 육유는 이 험난한 여정 속에서 단 하루도 자신의 기록을 게을리 하지 않았다. 본고는 아직 국내에 완역되지 않은 ≪입촉기≫를 번역하여 육유의 문학 연구뿐만 아니라 중국의 기행문 연구 및 풍속・지리・문화 연구에 작은 발판이 되고자 한다.[1)]

www.kci.go.kr

* 延世大學校 中語中文學科 博士后(ej.drmel@gmail.com)

1) 본고는 上海師范大學古籍整理研究所에서 편찬한 ≪全宋筆記≫ 第五編八에 수록된 ≪入蜀

2. ≪入蜀記≫ 소개와 번역 의의

2.1 陸游와 ≪入蜀記≫

육유(1125~1210)는 越州 山陰縣(지금의 浙江 紹興) 사람으로 字는 務觀이고 號는 放翁이다. 北宋의 멸망을 경험한 아버지로부터 애국사상에 대한 교육을 받아왔던 육유는 잃어버린 땅을 회복하고 金과 맞서야 한다는 主戰論을 평생 주장했다. 이로 인해 主和派에게 늘 정치적으로 배척을 당하여 관직 생활은 불우했으나 문학적인 성취만큼은 중국 문학사에서 손꼽을 만큼 뛰어나다. 남송 제일의 시인으로 평가되는 그는 평생 1만 首에 달하는 시를 남겼으며 산문에서도 큰 명성을 남겼다. 저서로는 ≪劍南詩稿≫ 85권, ≪渭南文集≫ 50권, ≪老學庵筆記≫ 10권 등이 있다.

≪입촉기≫는 육유가 고향에서부터 부임지에 도착하는 과정을 일기의 형식으로 써내려간 작품이다. 그는 자신이 어떤 지역을 지나는지, 그곳에서 누구를 만났고, 무엇을 보았는지를 상세히 기록했으며 명승고적의 역사적인 유래를 밝히거나 세상에 잘못 알려진 이야기를 고증하여 바로잡기도 했다. 또한 여행이라는 특수한 경험 속에서 벌어지는 소소한 사건들과 자신의 감정 역시 차분하게 기술하고 있다. 이처럼 지리와 역사, 또 문화적 가치를 모두 갖추고 있는 ≪입촉기≫는 육유의 벗이기도 한 范成大가 四川에서 蘇州에 이르기까지 5개월간 배로 여행한 여정을 그린 ≪吳船錄≫과 함께 宋代를 대표하는 기행문[2]의

記≫(大象出版社, 2012)를 바탕으로 번역했다. 이 판본은 ≪叢書集成初編≫을 底本으로 하고 ≪筆記小說大觀≫본과 文淵閣≪四庫全書≫본 등을 참고하여 교정한 것이다.

2) 현재 중국과 한국의 학계에서 여행의 내용을 기록 한 글을 어떻게 명명하고 분류할 것인가 하는 문제는 여전히 해결되어지지 못한 채 游記 혹은 行記 등의 명칭으로 불리고 있다. ≪입촉기≫역시 游記 혹은 游記文이라고 칭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나, 서술 방식에 있어서 날짜별로 기술이 되어 있으므로 日記로 분류하는 학자도 있고 작가의 서술 태도나 집필 의도가 비교적 자유롭고 편찬 방식에 있어서 제재가 하나로 통일되지 않은 여러 고사들을 한데 엮었다는 것을 기준으로 筆記라고 하는 경우도 있다. 또한 앞의 세 가지 분류를 혼용

정수로 평가받고 있다.

2.2 ≪入蜀記≫의 번역 의의

송대의 기행문은 이전 시기의 다양한 여행 기록을 융합하고 총괄함과 동시에 이전과는 다른 새로운 형태의 글쓰기로 진화해나갔다. 따라서 후대에 등장한 모든 중국 기행문의 내용과 형식은 송대에 모두 초석을 닦았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송대의 기행문은 明代 徐弘祖의 ≪徐霞客游記≫라는 명작을 탄생시키는 자양분이 되었고 이후 미국을 여행한 梁啓超의 ≪新大陸游記≫와 유럽 각지를 여행한 康有爲의 ≪歐洲十一國游記≫ 등 근대 기행문에 이르기까지 그 도도한 명맥을 유지하고 있다. 중국뿐만 아니라 송대의 기행문은 국경을 넘어 한국의 글쓰기에도 큰 영향을 미쳤다. 朝鮮 正祖 때 청나라로 떠난 朴趾源은 瀋陽의 어느 골동품 가게에서 만난 중국인에게 "나는 陸放翁의 ≪입촉기≫를 읽을 때마다 미상불 나풀나풀 춤을 추고 싶었습니다." 라고 말했다. 또 조선 후기 실학자인 李德懋는 ≪입촉기≫를 읽고 그 속에서 세속에 구애 받지 않는 여유와 함께 비분강개의 뜻을 느낄 수 있다고 했으며, 李夏坤은 ≪입촉기≫의 고증이 정밀하면서도 심오하다고 평가하면서 육유와 같이 자연스럽게 글을 써 내려가되 그 속에서 문장의 솜씨가 드러나야 한다고 말했다. 그들은 단지 ≪입촉기≫를 애독한 것에 그치지 않고 각자 ≪熱河日記≫, ≪入燕記≫, ≪南游錄≫등과 같은 기행문을 써서 후세에 남겼으니 그 속에 육유의 문학관이 서려 있지 않다고 누가 말할 수 있겠는가.

이처럼 중국과 한국 기행문의 심도 깊은 연구를 위해서는 그 시작점이라 할 수 있는 南宋 기행문에 대한 내용파악이 우선시 되어야 한다. 그러나 남송 기

하여 日記體 游記 혹은 游記體 筆記와 같이 내용과 형식상의 특징을 함께 엮는 방식도 있다. 본고에서는 우선 한국의 연구자 혹은 비연구자 모두에게 비교적 친숙한 명칭인 '기행문'이라는 용어를 선택하여 사용할 것이며 차후 연구에서 기행문의 분류와 범위에 대한 연구를 진행하고자 한다.

www.kci.go.kr

행문의 양대 산맥이라 할 수 있는 작품 중 ≪오선록≫이 국내에 이미 두 종의 완역서가 출간된 반면,[3] ≪입촉기≫는 극히 일부 내용만이 산발적으로 이루어져 있을 뿐 완역이 이루어지지는 못하여 그 전반적인 내용을 확인할 수가 없다.[4] 이에 본고에서는 총 6권으로 이루어진 ≪입촉기≫ 중 권1에 대해 번역 및 주석 작업을 진행하겠다.

3. ≪入蜀記≫ 주석과 번역

◎ 卷一

乾道五年十二月六日, 得報, 差通判夔州. 方久病, 未堪遠役, 謀以夏初離鄕里.

乾道 5년(1169) 12월 6일, 夔州[5] 通判[6]에 파견되었다는 명을 받았다. 당시 오랫동안 병을 앓아 먼 길을 감당하지 못할 것 같아 이듬해 초여름 고향을 떠날 것을 계획했다.

六年閏五月十八日, 晩行. 夜至法雲寺, 兄弟餞別, 五鼓始決去.

건도 6년(1170) 윤5월 18일, 저녁에 길을 나섰다. 한밤에 法雲寺[7]에 이르러 형제들과 송별회를 가지고, 五更[8](새벽3시~5시)이 되어 비로소 작별하고

3) ≪오선록≫은 안예선(지만지, 2008)과 권내현(학고방, 2008)에 의해 완역되었다.
4) 이기훈의≪陸游散文集≫(지만지, 2011)과 심경호의 ≪여행과 동아시아 고전문학≫(고려대학교출판부, 2011) 은 ≪입촉기≫를 소개하고 대표적인 문장을 선택하여 번역하고 있다. 그러나 ≪입촉기≫의 총156조 중 전자는 21조, 후자는 6조만을 수록하고 있을 뿐이어서 전체적인 내용을 파악하기는 힘들다.
5) 夔州: 治所는 지금의 重慶市 奉節縣에 있었다.
6) 通判: 宋初에 설치된 관직으로 朝廷에서 직접 각 州府에 통판을 한 명씩 파견하여 장관의 업무를 보조하면서 동시에 그들을 감독하도록 했다.
7) 法雲寺: ≪嘉泰會稽志≫에 따르면 법운사는 육유의 고향인 山陰縣 서북쪽에 위치했다고 한다.
8) 고대에는 하룻밤을 다섯 단계로 나누어 북을 쳐서 시간의 변화를 나타냈다. 이를 五鼓 혹

www.kci.go.kr

떠났다.

十九日, 黎明至柯橋館, 見送客. 巳時, 至錢淸, 食亭中, 凉爽如秋. 與諸子及送客步過浮橋, 橋堅好非昔比, 亭亦華潔, 皆史丞相所建也. 申後, 至蕭山縣, 憩夢筆驛. 驛在覺苑寺旁, 世傳寺乃江文通舊居也. 有大碑, 葉道卿文, 寺額及佛殿榜皆沈睿達所書. 有碑亦睿達書, 尤精古. 又有毘陵人戚舜臣所畵水, 蓋佛後座大壁也, 卒然見之, 覺濤瀾洶涌可駭, 前輩或謂之死水, 過矣! 縣丞權縣事紀旬, 尉曾盤來. 曾原伯逢招飮於其子槃廨中, 二鼓歸. 原伯復來, 共坐驛門, 月如晝, 極凉. 四鼓解舟, 行至西興鎭.

(5월) 19일, 동틀 무렵 柯橋館[9]에 도착하여 배웅하러 온 손님들을 만났다. 巳時(오전9~11시)에 錢淸[10]에 도착하여 정자에서 식사를 했는데 가을처럼 날씨가 서늘했다. 아들들 그리고 배웅객과 함께 浮橋를 건넜는데, 다리가 견고하고 좋아져서 예전에 비할 바가 아니었고, 정자 역시 화려하고 깨끗했는데, 이는 모두 史丞相[11]이 만든 것이었다. 申時(오후3시~5시) 이후로 蕭山縣[12]에 도착하여 夢筆驛[13]에서 휴식을 취했다. 역참은 覺苑寺[14] 옆에 있었는데, 세상에 전해지기로는 각원사가 江文通[15]의 고거라고 한다. (각원사 안의) 커다란 비석에는 葉道卿[16]의 문장이 새겨있었고, 사원의 편액과 불전의 榜은 모두 沈睿達[17]이 쓴 것이었다. 심예달이 쓴 비문도 있는데 매우 아름답고 고풍

은 五更, 五夜라고 불렀다.

9) 柯橋館: 柯橋는 鎭名으로 지금의 浙江 紹興 서북 일대이다. 館은 관원을 접대하고 숙박을 제공하는 관사이다.

10) 錢淸: 지금의 紹興 서북 일대로 南宋시기에는 鹽業으로 유명했다.

11) 史丞相: 史浩(1106~1154). 字는 直翁이고 明州 鄞縣(지금의 浙江 寧波) 사람이다. 紹興 14년(1144)에 進士에 합격했고 孝宗 때 관직이 右丞相에 이르렀다.

12) 蕭山縣: 지금의 浙江省 杭州市 蕭山區 일대에 해당한다.

13) 夢筆驛: 杭州 蕭山縣 동북에 위치했던 역참이다.

14) 覺苑寺: 齊 建元 2년(480)에 江淹의 아들인 江昭玄이 고택을 절로 개조했다.

15) 江文通: 南朝 시대의 문학가이자 정치가였던 江淹(444~505)을 말한다. 그는 꿈속에 신선으로부터 다섯 가지 빛이 나는 신비한 붓을 받았는데 그 이후 훌륭한 문장을 쓸 수 있었다고 하며 夢筆驛이란 이름 역시 이 고사에서 유래했다.

16) 葉道卿: 葉淸臣(1000~1049). 長州(지금의 江蘇 蘇州) 사람이다. 天聖 2년(1024)에 進士에 합격했고 仁宗 때 翰林學士를 역임하면서 三司使를 대리하기도 했다.

www.kci.go.kr

스러웠다. 또 毘陵[18] 사람인 戚舜臣[19]이 그린 강 그림이 있는데 아마도 이것은 불좌 뒤편의 큰 벽이었을 듯하다. 갑자기 그것을 보니 파도가 세차게 치솟는 것 같아 깜짝 놀랐다. 예전에 혹자는 이것을 '죽음의 강'이라 했다는데 그것은 좀 지나친 말이다. 縣令 보좌관 겸 현령 대행인 紀旬[20]과 縣尉 曾盤[21]이 찾아왔다. 曾原伯[22]이 자신의 아들 증반의 관청으로 초대해 연회를 베풀어주어 二更(밤9시~11시)에 돌아왔다. 증원백이 다시 찾아와 역문에 함께 앉아있었는데, 달빛이 밝아 대낮 같았고 매우 시원했다. 四更(새벽1시~3시)에 배가 출발하여 西興鎭[23]까지 왔다.

二十日, 黎明渡江. 江平無波, 少休仙林寺, 寺僧爲開館設湯飮. 遂買小舟出北關, 登漕司所假舟於紅亭稅務之西. 夜無蚊.

(5월) 20일, 동틀 무렵 錢塘江을 건넜는데, 강은 잔잔하여 파도가 없었다. 仙林寺[24]에서 잠시 쉬었는데 절의 승려가 쉴 곳을 마련하고 마실 것을 차려두었다. 곧 작은 배를 사서 北關[25]을 빠져나온 후 紅亭稅務[26]의 서쪽에서 漕司[27]에게 빌린 배에 올라탔다. 밤에 모기가 없었다.

---

17) 沈睿達: 沈遼(1032~1085). 錢塘(지금의 浙江 杭州)사람으로 沈遘의 동생이다. 曾鞏, 蘇軾, 黃庭堅 등과 詩詞를 주고받았으며 문장과 서법에 모두 능하였다고 한다.
18) 毘陵: 지금의 江蘇省 常州 지역
19) 戚舜臣: (996~1052) 字는 世佐이며 應天府 楚丘(지금의 山東 曹縣) 사람이다. 撫州를 다스렸으며 후에 虞部郎中이 되었다.
20) 紀旬: 京口(지금의 江蘇 鎭江) 사람으로 부친은 紀交, 조부는 紀霖이다. 훗날 房州 현령을 지냈다.
21) 曾盤: 曾逢의 長子로 字는 樂道이다.
22) 曾原伯: 曾幾의 아들인 曾逢을 가리킨다. 陸游는 江西詩派 시인 중 한 사람인 증기를 스승으로 모셔 평소 증봉 형제와도 교분이 두터웠다.
23) 西興鎭: 錢塘江 남쪽 연안으로 지금의 浙江 蘇山 서북쪽을 말하며 浙東運河의 기점이 되는 곳이다.
24) 仙林寺: 仙林慈恩普濟敎寺를 말하며 민간에 전해지기로는 唐 太宗이 자신의 병을 치유해 준 승려를 위해 선림사를 지었다고 한다.
25) 北關: 臨安城의 북쪽 水門인 餘杭門의 속칭
26) 紅亭稅務: 臨安城 동쪽 崇新門 밖에 위치한 관세 징수소
27) 漕司: 각 지역에서 세금 징수와 운송 업무를 담당하던 관청 혹은 관원

www.kci.go.kr

二十一日, 省三兄.

(5월) 21일, 큰형[28]을 방문했다.

二十二日至二十四日, 皆留兄家.

(5월) 22일부터 24일까지 계속 형 집에 머물렀다.

二十五日晚, 葉夢錫侍郎衡招飮, 案間設礬山數盆, 望之如雪.

(5월) 25일 밤, 戶部侍郎 葉夢錫[29]의 연회에 초대를 받아 갔는데, 탁자 사이에 산 모양으로 쌓아 둔 백반석이 여러 개 있었다. 멀리서 그것을 바라보면 마치 눈이 내린 것 같았다.

二十六日晚, 芮國器司業曄招飮. 同集仲高兄, 詹道子大著亢宗, 張叔潛編修淵. 坐中國器云, 頃在廣東作漕, 有提擧茶鹽石端義者, 性殘忍, 每捕官吏繫獄, 輒以石鹽木枷枷之, 蓋木之至堅重者. 每曰, 木名石鹽, 天生此爲我用也. 其後, 石坐罪, 竟荷校云.

(5월) 26일 밤, 芮國器[30]가 연회에 초대했다. 제종형 陸仲高[31], 詹道子[32], 張叔潛[33]과 함께 모였다. 술자리에서 예국기가 다음과 같은 이야기를 해주었다. 이전에 廣東지역에서 漕司 업무를 담당할 때 提擧茶鹽[34]을 맡은 石端義라

---

28) 陸游의 맏형인 陸淞을 말하며 字는 子逸이다. 육씨 집안 항렬로 따졌을 때 셋째에 해당하여 三兄이라 불렀다.

29) 葉夢錫: 葉衡(1122~1183). 婺州 金華(지금의 浙江 金華) 사람이다. 紹興 18년(1148)에 進士에 합격했고 이후 右丞相 겸 樞密使의 자리까지 올랐다.

30) 芮國器: 芮曄(1114~1172). 芮燁 혹은 芮煜으로 표기 된 곳도 있다. 烏程(지금의 浙江 湖州) 사람으로 陸游, 周必大, 朱熹 등과 교분이 두터웠다. 乾道 5년(1169)에 國子監의 副長官인 司業에 임명되었다가 후에 祭酒 자리까지 올랐다. 일반적으로 글에서 타인을 설명할 때는 姓, 字, 官職, 名 순서로 표기한다.

31) 仲高: 陸升之(1115~1174). 山陰(지금의 浙江 紹興) 사람으로 육유의 제종형이며 육유보다 12살이 많다.

32) 詹道子: 詹亢宗. 山陰 사람으로 紹興 18년(1148)에 진사에 합격했다. 乾道 5년(1169)에 著作佐郎에 임명되어 大著라 칭해졌다.

33) 張叔潛: 張淵. 長樂(지금의 福建 閩侯) 사람으로 前朝의 國史, 實錄, 會要 등을 편찬하는 관직인 編修를 지냈다.

www.kci.go.kr

는 사람이 있었는데, 성격이 잔인하여 매번 관리들을 체포하여 옥에 가두고는 곧 石鹽木[35]으로 된 칼을 씌웠는데 대체로 나무들이 매우 견고하고 무거웠다. 그는 매번 '나무 이름이 (나의 姓과 관직명을 합한) 石鹽인 것을 보니, 이것은 타고 나기를 나를 위한 나무로구나.'라고 말했는데, 그 후 석단의가 죄를 지어 결국 (자신 역시) 칼을 씌우는 형벌을 받게 되었다고 한다.

二十七日.

(5월) 27일.

二十八日, 同仲高出閶門, 買小舟泛西湖至長橋寺. 予不至臨安八年矣! 湖上園苑竹樹皆老蒼, 高柳造天, 僧寺益葺, 而舊交多已散去, 或貴不復相通, 爲之絶嘆.

(5월) 28일, 陸仲高와 함께 閶門[36]을 나가 작은 배를 사서 西湖[37]에 띄워 長橋寺[38]까지 이르렀다. 내가 臨安[39]을 떠난 지 8년이나 되었구나! 호숫가 정원의 대나무는 모두 무성하고, 큰 버드나무 하늘에 닿을 듯 하며 사찰은 수리를 더욱 잘 해두었다. 그러나 옛 친구들 이미 대부분이 흩어졌고 간혹 (남아 있는) 귀하신 몸들과는 다시 왕래할 수가 없으니 참으로 한탄스럽다.

二十九日, 沈持要檢正樞招飲, 邂逅趙德莊少卿彦端. 晚出湧金門, 並湖繞城至舟中.

(5월) 29일, 檢正 沈持要[40]가 베푼 연회에 갔다가 우연히 少卿 趙德莊[41]을

---

34) 提擧茶鹽: 차와 소금에 대한 세금을 관장하는 관직
35) 石鹽木: 남방 지역에서 주로 분포하는 나무로 견고하고 해충에 강하다.
36) 閶門: 臨安城 서쪽의 네 개 城門 중 南門인 淸波門의 별칭
37) 西湖: 지금의 浙江省 杭州市 서쪽에 위치한 유명한 호수로 삼면이 산으로 둘러싸여 있다. 수면 면적은 약 5.66㎢로 호수 가운데의 섬을 포함하면 6.38㎢에 달하며 湖岸의 총길이는 15㎞이다.
38) 長橋寺: 현재 長橋寺라는 이름으로 전해지는 사찰이 없다. 陸游의 이동 경로에 따라 추측건대, 만약 湧金門 안에 있었다면 上方寺, 湧金門 밖이라면 柳洲寺, 서호를 따라 남쪽으로 갔다면 長橋 바로 옆에 위치한 寶德寺일 가능성이 있다.
39) 臨安: 南宋의 도읍지로 지금의 浙江省 杭州市에 해당한다.
40) 沈持要: 沈樞. 湖州 德淸(지금의 浙江 湖州)사람으로 일설에는 湖州 安吉(지금의 浙江 安

만났다. 저녁에 湧金門[42]으로 나와 서호를 따라 성을 둘러 배로 돌아왔다.

三十日.

(5월) 30일.

六月一日早, 移舟出閘, 幾盡一日, 始能出三閘. 船舫櫛比, 熱甚. 午後小雨, 熱不解. 泊糴場前.

(6월) 1일 아침에 배를 이동시켜 水門을 빠져나왔다. 거의 하루가 걸려서야 비로소 수문 세 개[43]를 다 통과했다. 배들이 빗살처럼 빽빽이 줄지어져 있었다. 더위가 심해서 오후에 비가 조금 내렸으나 열기를 식히지는 못했다. 곡물 시장 앞에다 정박했다.

二日, 禺中解舟. 鄉僕來言:<鄉中閔雨, 村落家家車水. 比連三年頗稔, 今春父老言占歲可憂, 不知終何如也.>過赤岸班荊館, 小休前亭. 班荊者, 北使宿頓及賜燕之地, 距臨安三十六里. 晚急雨頗涼. 宿臨平. 臨平者, 太師蔡京葬其父準於此. 以錢塘江爲水, 會稽山爲案, 山形如駱駝, 葬於駝之耳, 而築塔於駝之峯. 蓋葬師云, 駝負重則行遠也. 然東坡先生樂府固已云:<誰似臨平山上塔, 亭亭, 迎客西來送客行.>則臨平有塔亦久矣. 當是蔡氏葬後, 增築或遷之耳. 京責太子少保制云<託祝聖而飾臨平之山>是也. 夜半解舟.

(6월) 2일, 午時(오전11시~오후1시)가 다 될 무렵 배를 출발시켰다. 우리 마을 하인이 와서 말하기를 "마을에 비가 적게 와서 동네 집집마다 수차를 사용해 물을 대고 있습니다. 최근 3년 동안 곡식이 잘 여물었는데, 올봄 동네

吉) 사람이라고도 한다. 紹興 15년(1145)에 진사가 되었으며 훗날 湖南安撫使에서 寶文閣待制로 승진했다. 문장에 뛰어났으며 저서로 ≪通鑑總類≫가 있다. 檢正은 中書門下省檢正諸房公事의 간칭이다.

41) 趙德莊: 趙彦端(1121~1175). 汴京(지금의 河南 開封) 사람으로 紹興 8년(1138)에 진사에 합격하여 吏部員外郎 겸 太常少卿을 역임했으며 후에 관직이 朝奉大夫까지 이르렀다. 少卿은 太常少卿의 간칭이다.

42) 湧金門: 臨安城 서쪽의 네 개 城門 중 北門인 豊豫門의 별칭

43) 三閘: 臨安城 북쪽의 餘杭門 밖의 운하에 있던 上閘, 中閘, 下閘 세 개의 수문을 말한다.

www.kci.go.kr

어르신이 올해 농사는 걱정스럽다는 점괘를 말씀하셨으니 결과가 어찌 될지 모르겠습니다."라 했다. 赤岸[44] 班荊館을 지나 정자 앞에서 잠시 쉬었다. 班荊은 金國의 사신들이 숙박하고 연회를 즐기던 곳으로 臨安에서 36리 떨어져 있다. 저녁에 갑자기 비가 와서 제법 선선해졌다. 臨平[45]에 묵었다. 임평은 太師 蔡京[46]이 그의 아버지 蔡準을 장사지낸 곳으로 錢塘江[47]을 끼고 있고 會稽山[48]을 案山[49]으로 두었으며 산의 형태가 낙타와 같다. 낙타의 귀에 해당하는 곳에 채준을 매장을 했고 낙타의 혹에 해당하는 곳에 탑을 세웠다. (당시) 葬師[50]가 (풍수지리로 보아) 낙타의 짐이 무거워야 먼 길을 가는 것이라 말했다고 한다. 그러나 東坡[51] 선생의 詞[52]에 이미 '臨平山 위의 탑과 같은 이 누구인가, 높이 솟아 서쪽에서 오는 객 맞이하고 떠나는 객 전송하네.'라는 구절이 있는 것으로 보아 임평의 탑은 (채준을 장사 지내기) 오래 전부터 있었던 것이다. (아마도) 채씨를 장례 치른 후 탑을 증축했거나 혹은 (원래 있던) 탑을 옮긴 것 같다. 채경에 대해 질책한 <責太子少保制>에서 '황제를 축원하다는 핑계로 임평산을 (멋대로) 단장했다'라 한 것은 바로 이를 두고 한 말이다. 한밤중에 출항했다.

---

44) 赤岸: 赤岸港 혹은 赤岸河를 말하며 浙西運河의 지류이다. 上塘, 高塘, 橫塘 등 여러 하천을 통과하여 흐르며, 지금의 半山 부근에 赤岸橋가 있었다.

45) 臨平: 지금의 浙江省 杭州市 餘杭區에 해당한다.

46) 蔡京: (1047~1126). 字는 元長으로 興化 仙游(지금의 福建 莆田) 사람이다. 熙寧 3년(1070)에 진사에 급제했으며 徽宗 때 관직이 太師에 이르렀으나 欽宗이 즉위하자 嶺南으로 폄적되어 그곳으로 가는 길에 죽었다. 채경의 아버지인 蔡準은 王安石과 인척관계로 관직이 侍郎에 이르러 평소 蔡侍郎으로 불리었다.

47) 錢塘江: 浙江省의 최대 하류로 浙江 또는 之江이라 불리기도 했다.吳越文化의 주요 발원지 중 하나로 길이는 약 605㎞에 달한다.

48) 會稽山: 浙江省 紹興市 남동부에 위치한 명산으로 畝山, 茅山 등으로 불리기도 한다. 남북으로 약 100㎞, 동서로 약 35㎞로 펼쳐져 있으며 평균 해발은 500m, 최고봉인 東白山은 1195m이다.

49) 案山: 풍수지리에서 집터나 묏자리 맞은편에 가까이 있는 산을 말한다.

50) 葬師: 喪葬禮를 치를 때 장지의 풍수를 살피고 날짜를 택일해 주던 사람

51) 東坡: 蘇軾(1037~1101). 字는 子瞻, 號는 東坡居士이다. 眉州 眉山(지금의 四川 眉山) 사람으로 嘉祐 2년(1057)에 진사가 되고 杭州, 密州, 湖州 등에서 지방관을 역임했다. 아버지 蘇洵, 동생 蘇轍과 함께 三蘇라 불리며 모두 중국을 대표하는 문호로 칭송받는다.

52) 蘇軾의 詞 <南鄉子·送述古>를 말한다.

三日, 黎明至長河堰, 亦小市也. 魚蟹甚富. 午後至秀州崇德縣. 縣令右從政郎吳道夫, 丞右承直郎李植, 監秀州都稅務右從政郎章湜來. 舊聞戴子微云: <崇德有市人吳隱, 忽棄家寓旅邸, 終日默坐一室. 室中惟一臥榻, 客至共坐榻上, 或載酒過之, 亦不拒, 淸談竟日. 隱初不學問, 至是間與人言≪易≫數, 皆造精微, 亦能先知人吉凶壽夭, 見者莫能測也.> 因見吳令問之, 云皆信然. 今徙居村落間矣. 是晩行十八里, 宿石門. 火雲如山, 明日之熱可知也.

(6월) 3일, 동틀 무렵 長河堰[53]이라는 작은 시장에 도착했는데 생선과 게가 매우 풍부했다. 오후에는 秀州 崇德縣[54]에 도착했다. 縣令 右從政郎 吳道夫와 縣丞 右承直郎 李植, 監秀州都稅務 右從政郎 章湜이 찾아왔다. 예전에 戴子微[55]에게 다음과 같은 말을 들은 적이 있다. "숭덕현 저자거리에 吳隱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홀연히 집을 버리고 여관에 머물면서 종일토록 방에서 묵좌를 했습니다. 방에는 침상 하나만이 있었는데 손님이 오면 모두 그 침상에 앉았지요. 누가 술을 가지고 오면 거절하지 않고 온종일 한담을 나누었습니다. 오은은 원래 학문을 깨우치지 못했으나 (여관에 머물기 시작한) 이때에 이르러서는 사람들과 ≪周易≫ 에 관해 이야기함에 심오한 경지에 도달해 있었습니다. 또한 사람의 길흉화복과 수명을 미리 알 수 있다했는데, (그를) 보러 온 사람들은 능히 헤아릴 수 없는 것들이었습니다." 이에 현령 오도부에게 (이 일들을) 물었더니 모두 사실이라고 말했다. (오은은) 지금은 마을로 거처를 옮겨갔다고 한다. 이날 밤 18리를 가서 石門[56]에 묵었다. 붉은 구름이 산처럼 짙게 드리운 것을 보아 내일의 무더위를 가히 짐작할 수 있었다.

四日, 熱甚, 午後始稍有風. 晩泊本覺寺前, 寺故神霄宮也. 廢於兵火, 建炎後再修, 今猶甚草創. 寺西廡有蓮池十餘畝, 飛橋小亭, 頗華洁. 池中龜無數, 聞人聲皆

53) 長河堰: 지금의 浙江省 海寧市 長河壩에 위치하며 長安堰이라고도 불리었다. 堰은 물을 가두어 수위를 조절하는 구조물을 말한다.
54) 秀州崇德縣: 秀州는 지금의 浙江省 嘉興市 일대이며 崇德縣은 桐鄕市 崇福鎭에 해당한다.
55) 戴子微: 戴幾先. 常州 無錫(지금의 江蘇 無錫)사람으로 紹興 18년(1148)에 진사가 되어 이후 國子司業, 湖北運副 등을 역임했다.
56) 石門: 지금의 浙江省 桐鄕市 서부 崇德縣에 해당한다.

駢集, 駢首仰視, 兒曹驚之不去. 亭中有小碑, 乃郭功甫元祐中所作≪醉翁操≫, 後自跋云<見子瞻所作未工, 故賦之>, 亦可異也.

(6월) 4일, 더위가 심했다. 오후에 비로소 바람이 조금 불었다. 저녁에 本覺寺[57] 앞에 정박했다. 본각사는 원래 (도교 사원인) 神霄宮[58]이었는데 전쟁에 폐허가 되었다가 建炎 연간(1127~1130) 이후 재건되어 지금은 오히려 처음의 모습과 흡사해졌다. 절의 서쪽 행랑에는 (면적이) 10여 무 정도 되는 연못이 있었는데, (그곳에는) 浮橋와 작은 정자가 있어 매우 아름답고 정갈해보였다. 연못에 있던 무수히 많은 거북이가 사람 소리를 듣고 모여들어 함께 머리를 치켜들고 위를 바라보고 있었다. 아이들이 거북이를 놀라게 해도 도망가지 않았다. 정자에는 작은 비석이 있었는데 바로 郭功甫[59]가 元祐 연간(1086~1094)에 지은 <醉翁操>[60]가 쓰여 있었다. 뒷부분에 (곽공보가) 스스로 쓴 跋文에서 '子瞻(즉, 蘇軾)이 쓴 것이 정교하지 못하여 고로 이것을 지었다.'라 하였는데, 이 또한 뛰어났다.

五日早, 抵秀州. 見通判權郡事右通直郎朱自求, 員外通判右承事郎直秘閣趙師夔, 方務德侍郎滋. 務德留飯, 飯罷, 還舟小憩, 極熱. 謁樊自强主管, 樊自牧教授, 【廣, 抑皆茂實吏部子.】聞人伯卿教授. 【阜民, 茂德刪定子.】二樊居城外, 居第頗壯, 茂實晩歲所築, 尙未成也. 隔水有小園, 竹樹修茂, 荷池渺瀰可喜. 池上有堂, 曰<讀書堂>. 遊寶華尼寺, 拜宣公祠堂, 有碑缺壞, 磨滅之餘, 時時可讀, 蘇州刺史于頔書. 大略言<秘書監陸公齊望始作尼寺於此, 其後灞, 滻, 澧兄弟又新之, 後又有賢妹字意者, 陸氏嘗有女子爲尼>云. 然不言宣公所以有祠者, 【≪家譜≫澧,

57) 本覺寺: 지금의 浙江省 嘉興市 京杭大運河에 인접한 사찰로 唐 大中 10년(856)에 처음 세워졌다.

58) 神霄宮: 徽宗은 政和 7년(1117)에 모든 州와 軍에 도교 사원인 神霄宮을 설치할 것을 명했는데, 당시 道觀이 없는 곳은 불교 사찰을 개조하여 도관을 설치하기도 했다.

59) 郭功甫: 郭祥正(1035~1113). 當涂(지금의 安徽 馬鞍山) 사람으로 皇祐 5년(1053)에 진사가 되어 秘書閣校理, 太子中舍, 汀州通判 등을 역임했다. 일생동안 1400여 수의 詩를 지었으며 저작으로≪靑山集≫ 30卷이 있다.

60) 醉翁操: 詞調名. 원래 琴曲이었으나 여기에 蘇軾이 가사를 붙였다. 醉翁은 歐陽修를 가리킨다.

賴此證誤. 諱灝者, 則宣公之父也.】老尼妙濟, 大師法淳及其弟子居白留啜茶, 且言方新祠堂也. 移舟北門宣化亭, 晩復過務德飯.

(6월) 5일 아침, 秀州에 도착했다. 通判 權郡事右通直郎 朱自求와 員外通判右承事郎直秘閣 趙師夔[61], 侍郎 方務德[62]을 만났다. 방무덕이 밥을 먹고 가라고 붙잡아 식사를 끝내고 배로 돌아와 잠깐 쉬었다. 날이 몹시 더웠다. 主管 樊自强과 教授 樊自牧【樊廣과 樊抑[63]은 모두 吏部尙書 樊茂實[64]의 아들이다.】, 教授 聞人伯卿【聞人阜民[65]은 刪定 聞人茂德[66]의 아들이다.】에게 인사를 갔다. 번자강과 번자목은 성 밖에 사는데 집이 매우 웅장했다. 이 집은 번무실이 만년에 지은 것인데 아직 다 완공되지 않았다. 물 건너로 작은 정원이 있는데 대나무가 무성하게 솟아 있고 연못이 널찍한 것이 보기 좋았다. 연못에는 '讀書堂'이라고 부르는 건물이 있었다. (비구니 절인) 寶華尼寺를 둘러보고 宣公[67]의 사당에 가서 참배를 드렸다. 비석이 있었으나 훼손이 되어있었다. 마모되고 남은 비석을 부분 부분 읽을 수 있었는데 蘇州 刺史 于頔[68]의 글이었다. 대략의 내용은 '秘書監 陸齊望이 일찍이 이곳에 비구니 절을 세웠다. 그 후 (아들인) 陸灝, 陸滻, 陸灃 형제들이 다시 증축했다. 훗날 (陸氏 형제들에게) 陸意라는 이름의 여동생이 있었는데 陸氏 집안은 딸이 있으면 비구니로 삼았다.'라 쓰여 있었다. 그러나 (비문에는) 선공의 사당이 있는 까닭에 대해서는 언급되어 있지 않았다.【이 비석에 근거하면, ≪家譜≫에 陸灃라고 되어

61) 趙師夔: (1136~1196). 新安郡王으로 字는 汝一이다. 秀安僖王 趙子偁의 손자이자, 崇王 趙伯圭의 장자이며 孝宗의 조카다.
62) 方務德: 方滋(1102~1172). 嚴州 桐廬(지금의 浙江 杭州)사람으로 京西轉運副使, 兩浙轉運副使, 戶部侍郎 등을 역임했으며 金國의 사신으로 두 차례 파견되었다.
63) 樊自强의 이름이 廣, 樊自牧의 이름이 抑이다.
64) 樊茂實: 樊光遠(1102~1164). 錢塘 사람으로 紹興 5년(1135)에 급제한 후 秀州海鹽縣主簿, 監察禦史, 福建路提點刑獄公事 등을 역임했다. 陸游와 교분이 두터웠다.
65) 聞人伯卿의 이름이 阜民이다. 聞人은 複姓이다.
66) 聞人茂德: 聞人滋. 嘉興(지금의 浙江 嘉興) 사람으로 藏書家이다. 陸游와 함께 刪定官을 지낸 적이 있다.
67) 宣公: 陸贄(754~805)의 諡號. 字는 敬輿로 蘇州 嘉興 사람이다. 中唐의 저명한 문학가이자 정치가로 德宗 시기에 재상의 자리까지 올랐다.
68) 于頔: (?~818). 字는 允元으로 河南 洛陽(지금의 河南 洛陽) 사람이다. 唐 德宗 貞元(785~804) 연간에 蘇州 刺史를 역임했으며 憲宗 때 재상의 자리에 올랐다.

www.kci.go.kr

있는 것은 틀린 것이다. '灞'를 피휘한 것은 陸灞가 선공의 아버지이기 때문이다.[69]】 늙은 비구니 妙濟, 大師 法淳 그리고 그의 제자 居白이 붙잡아 함께 차를 마셨는데, 막 사당을 새로이 개보수 했다고 말하였다. 배를 北門에 있는 宣化亭으로 옮기고 저녁에 다시 方務德에게 가서 밥을 먹었다.

六日, 右奉議郎, 新通判荊南呂援來, 援字彦能. 進士聞人綱來, 綱字伯紀. 方務德館客, 自言識毛德昭. 德昭名文, 衢州江山縣人, 居於秀, 予兒時從之甚久. 德昭極苦學, 中年不幸病盲而卒, 無子. 綱言其盲後, 猶終日危坐, 默誦六經, 至數千言不已. 可哀也! 赴郡集, 於倅廨中坐. 花月亭有小碑, 乃張先子野<雲破月來花弄影>樂章, 云得句於此亭也. 晩赴方夷吾導之集於陳大光縣丞家, 二樊, 呂倅皆在. 大光字子充, 瑩中諫議孫, 居第潔雅, 末利花盛開.

(6월) 6일, 새로 通判에 부임한 荊南 사람인 右奉議郎 呂援이 찾아왔다. 여원의 字는 彦能이다. 進士 聞人綱도 왔는데, 문인강의 字는 伯紀이다. 그는 方務德의 식객이었는데, 자신이 毛德昭를 안다고 말했다. 모덕소의 이름은 文으로 衢州 江山縣[70] 사람이나 (이후) 秀州에 살았는데 내가 어려서부터 오랫동안 그를 따랐다. 모덕소는 각고의 노력으로 공부를 했으나 불행이도 중년에 병으로 눈이 멀어 죽었다. 자식은 없다. 문인강이 말하길 모덕소는 눈이 먼 후에도 여전히 하루 종일 정좌를 하고서 六經을 암송했는데, 수천 마디를 이어 말해도 그치는 법이 없었다고 한다. 이 얼마나 슬픈가! 通判의 관아에서 열리는 연회에 갔다. 花月亭에 있는 작은 비석에는 張子野[71]가 쓴 詞 중 '구름 사이로 비추는 달빛 꽃 그림자를 희롱하네.[72]'라는 구절이 쓰여 있었는데, 바로 화월정에서 이 구절을 지었다고 한다. 저녁에 縣丞 陳大光의 집에서 열린 方夷吾[73]의 모임에 갔더니 樊自强과 樊自牧, 呂援이 모두 있었다. 진대광의 字는

69) 陸游는 陸灞를 宣公 陸贄의 부친이라고 했으나 歐陽修의 表로 인해 오인한 듯하다. 陸灞는 陸贄의 할아버지 항렬이고, 陸齊政이 조부이며, 부친은 陸侃이다.
70) 衢州江山縣: 지금의 浙江省 江山市에 해당한다.
71) 張子野: 張先(990~1078). 烏程(지금의 浙江 湖州) 사람으로 天聖 8년(1030)에 진사가 되어 吳江知縣, 秀州通判, 虢州知州 등을 역임했다.
72) 張先이 秀州 通判 시절에 쓴 詞 <天仙子>의 일부이다.

www.kci.go.kr

子充으로 諫議大夫 陳瑩中[74]의 손자이다. 그의 집은 정갈하고 우아했으며 말리꽃이 만개해 있었다.

七日早, 遍辭諸人, 赴方務德素飯. 晩移舟出城, 泊禾興館前, 館亦頗閎壯. 終日大雨不止. 招姜醫視家人及綯.

(6월) 7일 아침, 여러 사람에게 두루 작별을 고하고 方務德에게 가서 채식으로 밥을 먹었다. 저녁에 배를 옮겨 성 밖으로 나가 禾興館 앞에 정박시켰는데, 화흥관 역시 매우 웅장했다. 하루 종일 큰 비가 그치지를 않았다. 의원 姜氏를 불러 아내(王氏)와 아들 綯[75]를 진찰하게 했다.

八日, 雨霽, 極涼如深秋. 遇順風, 舟人始張帆. 過合路, 居人繁夥, 賣鮓者尤衆, 道旁多軍中牧馬. 運河水泛溢, 高於近村地至數尺, 兩岸皆車出積水, 婦人, 兒童竭作, 亦或用牛. 婦人足踏水車, 手猶績麻不置. 過平望, 遇大雨暴風, 舟中盡濕. 少頃霽, 止宿八測. 聞行舟有覆溺者. 小舟叩舷賣魚頗賤, 蚊如蠭蠆可畏.

(6월) 8일, 비가 그치니 마치 늦가을처럼 선선해졌다. 순풍을 만나게 되어 뱃사람이 비로소 돛을 펼쳤다. 合路[76]를 지났는데 이곳은 주민이 매우 많았다. 특히 소금에 절인 생선을 파는 사람이 많았고 길가에는 군대의 말들이 많이 방목되고 있었다. 운하의 물이 범람해서 (수위가) 근처 마을의 땅보다 수척이나 높아져 양쪽 기슭에서 모두 수차로 고인 물을 퍼내고 있었다. 부녀자와 아이들 모두 일을 하고 있었으며 소를 이용하는 경우도 있었다. 부인들은 발로 수차를 밟으면서 또 손으로 마 삼는 것을 쉬지 않고 했다. 平望[77]을 지나는데

---

73) 方夷吾: 方導. 号는 覺齋居士이다. 慶元 3년(1197)에 쓴 의학 서적 ≪方氏編類家藏集要方≫ 2권이 현존한다.

74) 陳瑩中: 陳瓘(1057~1122). 南劍 沙縣(지금의 福建 三明) 사람으로 元豐 2년(1079)에 진사가 된 후 禮部貢院檢點官, 越州通判, 溫州通判, 左司諫 등의 관직을 역임했다.

75) 綯: 陸游의 다섯째 아들의 아명. 육유에게는 7명의 아들이 있었는데, 각 이름과 출생년도는 다음과 같다. 陸子虞(1148), 陸子龍(1150), 陸子修(1151), 陸子坦(1156), 陸子約(1166), 陸子布(1174), 陸子遹 혹은 陸子聿(1178)

76) 合路: 鎭名으로 嘉興, 平望, 吳江 사이에 있던 지역이다.

77) 平望: 지금의 江蘇省 蘇州市 吳江區에 해당한다.

큰비와 폭풍을 만나 배 안이 모두 젖어버렸다. 잠시 후 비가 그쳐 八測[78]에 숙박을 했다. 듣자하니 (폭풍우가 칠 때) 운항한 배중에 전복되어 침몰한 것도 있다 하였다. 작은 배에서는 뱃전을 두드리며 생선을 팔았는데 값이 매우 쌌다. 모기가 마치 벌이나 전갈 같아서 무서웠다.

九日, 晴而風. 舟人懲昨夕狼狽, 不敢解舟, 日高方行. 自至崇德, 行大澤中, 至此始望見震澤遠山. 午間, 至吳江縣, 渡松江, 風極靜. 癯庵竹樹益茂, 而主人死矣. 知縣右承議郎管鈗, 尉右迪功郎周廷來. 縣治有石刻曾文淸公≪漁具圖詩≫, 前知縣事柳楹所刻也. 漁具比≪松陵倡和集≫所載, 又增十事云. 托周尉招醫鄭端誠爲統, 綯診脉, 皆病暑也. 市中賣魚鮓頗珍. 晩解舟, 中流回望長橋, 層塔, 煙波渺然, 眞若圖畵. 宿尹橋, 登橋觀月.

(6월) 9일, 날은 맑으나 바람이 불었다. 뱃사람이 어젯밤 낭패로 고생을 하여 감히 배를 출발 시키지 못하다가 해가 높이 떠서야 비로소 출발했다. 崇德縣에 온 후로 큰 호수 안에서 배를 운행했는데, 이곳에 이르러서야 비로소 震澤[79]의 먼 산이 아득히 보였다. 정오에 吳江縣[80]에 이르러 松江[81]을 건넜는데 바람이 매우 고요했다. 癯庵[82]의 대나무는 더욱 무성해졌지만 주인은 죽고 없다. 知縣 右承議郎 管鈗과 縣尉 右迪功郎 周廷이 왔다. 治所에는 曾文淸公[83]의 <漁具圖詩> 석각이 있는데, 이것은 이전 지현이었던 柳楹이 새기게 한 것이다. (석각에 새겨진) 漁具가 ≪松陵倡和集≫[84]에 실린 어구 보다 열 가지가 더 많다고 한다. 현위 주연에게 부탁하여 의원 鄭端誠을 불러 (두 아들) 統[85]

78) 八測: 吳江縣의 동남쪽에 위치했던 鎭名으로 八尺, 八斥, 八坼 등으로 불리기도 했다.
79) 震澤: 江蘇省과 浙江省의 접경 지역에 위치한 중국에서 세 번째로 큰 담수호인 太湖의 별칭. 태호에는 호수와 산의 경치가 어우러져 중국의 명승지로 꼽혀왔다.
80) 吳江縣: 지금의 江蘇省 蘇州市 震澤縣으로 八都, 八測과 접경 지역
81) 松江: 太湖 하류에 위치한 吳淞江의 별칭으로 黃浦江의 상류이자 上海지역에서는 蘇州河라고 부른다.
82) 癯庵: 臞庵이라고도 하며, 宋 王份이 조성한 정원. 왕분은 吳江 사람으로 字는 文孺이다.
83) 曾文淸公: 曾幾(1084~1166). 字는 吉甫이고 贛州(지금의 江西 贛縣) 사람이다. 江西·浙西提刑, 秘書少監, 禮部侍郎 등을 역임했다. 육유는 젊어서 증기에게 시를 배웠다.
84) 松陵倡和集: 晩唐 시인인 皮日休와 陸龜蒙 등의 唱和詩를 엮은 시집으로 총 10권으로 되어 있으며 658수의 시가 실려 있다.

과 綯의 진맥을 짚어보게 했는데, 모두 열사병이었다. 시장에는 소금에 절인 생선을 팔고 있었는데 꽤 귀해 보였다. 저녁에 배를 출발시켜 중류쯤에서 長橋와 層塔을 돌아보니 물안개가 끝없이 자욱하게 끼어있어 참으로 그림을 그려 놓은 듯했다. 尹橋[86]에 묵으며 다리에 올라 달구경을 했다.

十日, 至平江. 以疾不入. 沿城過盤門, 望武邱樓塔, 正如吾鄉寶林, 爲之慨然. 宿楓橋寺前, 唐人所謂<夜半鐘聲到客船>者.

(6월) 10일, 平江[87]에 이르렀으나 전염병 때문에 (성안으로) 들어가지 않았다. 성벽을 따라 가다보니 盤門[88]을 지나게 되었는데 저 멀리 보이는 武邱塔[89]이 마치 내 고향 寶林寺[90]의 탑과 닮은 듯해서 감개가 무량하였다. 楓橋寺[91] 앞에 정박을 했는데, (이곳이) 唐代 사람이 '한밤중 종소리가 객선까지 들려오네.'[92] 라고 말한 바로 그곳이다.

十一日, 五更發楓橋, 曉過滸墅, 居人極多, 至望亭小憩. 自是夾河皆長岡高壟, 多陸種菽粟, 或灌木叢篠, 氣象窘隘, 非楓橋以東比也. 近無錫縣, 始稍平曠, 夜泊縣驛. 近邑有錫山, 出錫. 漢末≪讖記≫云:<有錫天下兵, 無錫天下淸. 有錫天下爭, 無錫天下寧.>至今錫見, 輒揜之, 莫敢取者.

(6월) 11일, 五更(새벽3시~5시)에 楓橋에서 출발을 하여 새벽에 滸墅[93]를 지나게 되었는데, (이곳은) 거주민이 매우 많았다. 望亭[94]에서 잠시 휴식을

85) 統: 육유의 장남인 陸子虞를 말한다.
86) 尹橋: 지금의 江蘇省 蘇州 吳中區 동남쪽, 尹山湖 부근에 있는 尹山橋를 말한다.
87) 平江: 宋代에 설치된 府로 治所는 지금의 江蘇省 蘇州市에 있었다.
88) 盤門: 蘇州 古城(吳都) 8문 중 하나로, 서남쪽의 水陸城門이다.
89) 邱樓塔: 武邱는 지금의 蘇州市 서북에 위치한 虎邱를 말하며, 武邱塔은 虎邱山에 위치한 탑으로 虎邱塔 혹은 雲岩寺塔으로 불리기도 한다.
90) 寶林: 육유의 고향인 山陰縣에 있는 寶林寺를 말한다.
91) 楓橋寺: 寒山寺의 별칭으로 지금의 蘇州市 姑蘇區에 위치한다.
92) 夜半鐘聲到客船: 中唐 시인인 張繼의 <楓橋夜泊>의 한 구절이다.
93) 滸墅: 關名으로 許市라고도 부르며 지금의 江蘇省 蘇州市 서북쪽에 위치한다.
94) 望亭: 鎭名으로 옛 이름은 御亭이다. 지금의 江蘇省 無錫市 동남쪽, 蘇州의 서북쪽에 위치한다.

취하였다. 여기에서부터 운하를 끼고 있어 모두 언덕이 길게 이어지고 이랑이 높아 각종 곡물들이 대부분이었지만, 간혹 관목과 작은 대나무들이 섞여 있어, 지세와 지형이 비좁고 협소하니 풍교의 동쪽 지역과는 (지형을) 비교할 수가 없다. 無錫縣[95]에 가까워지자 비로소 (지형이) 좀 평탄하고 널찍해졌다. 밤이 되어 현의 역참에다 정박했다. 마을 가까이에 錫山이 있는데 이곳에서 주석이 나온다. 漢나라 말에 쓰인 ≪讖記≫[96]에 따르면 '주석이 있으면 천하에 무기가 많아지고, 주석이 없으면 천하가 깨끗해진다. 주석이 있으면 천하에 전쟁이 일고, 주석이 없으면 천하가 평온해진다.'라고 했다. 지금까지도 주석이 나오면 서둘러 그것을 감추어 두어 감히 취하려고 하는 사람이 없었다.

十二日早, 謁喩子材郎中樗. 子材來謝, 以兩夫荷轎, 不持胡狀, 手自授謁云. 知縣右奉議郎吳澧來. 晩行, 夜四鼓至常州城外.

(6월) 12일 아침, 郎中 喩子材[97]에게 인사를 갔다. 유자재가 와서 사과하며 말하기를 (행차를 간소하게 하느라) 사내 둘이 가마를 멨고 胡狀[98]도 가져오지 않아 손수 名帖을 전한다고 했다. 知縣 右奉議郎 吳澧도 왔다. 저녁이 되어 길을 나서 四鼓(새벽 1시~3시) 즈음 常州[99]성 밖에 도착했다.

十三日早, 入常州. 泊荊溪館, 夜月如晝, 與家人步月驛外. 綯始小愈.

(6월) 13일 아침, 常州 성안으로 들어갔다. 荊溪館[100]에 정박을 했는데, 달빛이 밝아서 마치 낮과 같았다. 가족들과 함께 역관 밖으로 산책을 했다. 아들 綯의 병이 드디어 조금 나았다.

---

95) 無錫縣: 지금의 江蘇省 無錫市에 해당한다.
96) 讖記: 미래의 길흉화복을 예언한 서적으로, 주석과 관련된 내용은 周處의 ≪陽羨風土記≫에서 처음 보인다.
97) 喩子材: 喩樗(?~1177). 字가 子才로 표기된 곳도 있다. 嚴州(지금의 浙江 建德)사람으로 建炎 3년(1129)에 진사가 되어 玉山縣尉, 衡州通判, 大宗正丞, 工部員外郎 등을 역임했다.
98) 胡狀: 胡床이라고도 하며, 휴대가 가능하고 접을 수 있는 간편한 의자의 일종
99) 常州: 지금의 江蘇省 常州市 일대
100) 荊溪館: 常州에 있던 驛館으로 동쪽에 운하가 인접하여 荊溪로 통했다. 荊溪는 水名으로 宜興에서 발원하여 太湖까지 흐른다.

十四日早, 見知州右朝奉大夫李安國, 通判右朝奉郎蔣誼, 員外倅左朝散郎張堅【堅, 文定公綱之子.】, 教授左文林郎陳伯達, 員外教授左從政郎沈瀛, 司戶右從政郎許伯虎來. 伯達字兼善, 瀛字子壽, 皆未識, 子壽仍出近文一卷. 伯虎字子威, 余兒時筆硯之舊也. 至東嶽廟, 觀古檜, 數百年物也. 又小憩崇勝寺納凉, 遂解舟, 甲夜過奔牛閘. 宋明帝遣沈懷明擊孔覬, 至奔牛築壘, 卽此也. 閘水湍激, 有聲甚壯, 遂抵呂城閘. 自祖宗以來, 天下置堰軍止四處, 而呂城及京口二閘在焉.

(6월) 14일 아침, 知州 右朝奉大夫 李安國과 通判 右朝奉郎 蔣誼, 員外倅左朝散郎 張堅[101] 【장견은 文定公 張綱의 아들이다】, 教授 左文林郎 陳伯達, 員外教授左 從政郎 沈瀛, 司戶 右從政郎 許伯虎가 와서 만났다. 진백달은 字가 兼善이고 심영의 字는 子壽인데 모두 모르는 사람들이었다. 심영이 이에 근래에 지은 글 한 권을 꺼내어 보였다. 허백호의 字는 子威로 내가 어렸을 적 함께 공부했던 친구다. 東嶽廟[102]에 가서 오래된 전나무를 봤는데 수백 년은 된 것이었다. 또 崇勝寺[103]에서 (더위를 피해) 바람을 쐬며 잠시 휴식을 취하다가 곧 배를 출발시켜 甲夜(저녁 7시~9시)에 奔牛閘[104]을 지났다. (그 옛날) 南朝의 宋 明帝[105]는 沈懷明 장군을 보내 孔覬의 군대를 공격하게 했었다. (이에 심회명이) 奔牛에 이르러 보루를 쌓았다고 하는데 그곳이 바로 여기다. 수문 쪽은 물살이 세서 매우 웅장한 소리가 났다. 곧 呂城閘[106]에 도착했다. 太祖와 太宗 이래로 천하에 堰軍[107]을 네 곳에 설치했는데, 여성갑과 京口閘[108]이 (그 중)

---

101) 張堅: 字는 仲固이며 潤州 丹陽(지금의 江蘇 鎭江) 사람으로 紹興 24년(1154)에 진사가 되었다. 그의 부친인 張綱(1083~1166)의 字는 彦正이며 國子監, 太學博士, 秘書省校書郎, 監察御史 등을 역임한 名臣이다.

102) 東嶽廟: 지금의 江蘇省 常州市 武進區에 있던 도교 사원. 원래 梁武帝 蕭衍의 사택이었던 것을 훗날 사원으로 개조했다고 전해진다.

103) 崇勝寺: 隋代 司徒를 지낸 陳果仁(字는 世威)의 사택을 개조한 사찰.

104) 奔牛閘: 지금의 江蘇省 常州市 新北區 奔牛鎭에 위치한 水門이며 당시 수로의 요충지로 상업이 발달했었다.

105) 宋明帝: 南朝 宋의 제7대 황제인 劉彧(439~472). 字는 休炳, 廟號는 太宗이다. 유욱은 조카인 廢帝 劉子業을 암살한 후 황제의 자리에 올랐다. 이후 유자업의 동생인 劉子勳과 왕위 쟁탈로 전쟁을 하게 되었는데, 泰始 2년(466) 沈懷明을 파견하여 유자훈을 지지하던 孔覬를 격파함으로 승리의 국면으로 들어서게 되었다.

106) 呂城閘: 지금의 江蘇省 丹陽市 呂城鎭에 위치한 水門

107) 堰軍: 중요한 수리시설을 보수하고 지키기 위해 설치된 향토 부대. 北宋 때는 長安, 杉

두 곳에 해당한다.

十五日早, 過呂城閘, 始見獨轅小車. 過陵口, 見大石獸偃仆道傍, 已殘缺, 蓋南朝陵墓. 齊明帝時, 王敬則反, 至陵口慟哭而過是也. 余頃嘗至宋文帝陵, 道路猶極廣, 石柱承露盤及麒麟, 辟邪之類皆在, 柱上刻<太祖文皇帝之神道>八字. 又至梁文帝陵, 文帝, 武帝父也. 亦有二辟邪尙存, 其一爲藤蔓所纏若縶縛者, 然陵已不可識矣. 其旁有皇業寺, 蓋史所謂皇基寺也, 疑避唐諱所改. 二陵皆在丹陽, 距縣三十餘里. 郡士蔣元龍子雲謂予曰:<毛達可作守時, 有賣黃金石榴來禽者, 疑其盜, 捕得之, 果發梁陵所得.>夜抵丹陽, 古所謂曲阿, 或曰雲陽. 謝康樂詩云<朝日發雲陽, 落日到朱方>, 蓋謂此也.

(6월) 15일 아침, 呂城閘을 지나니 끌채가 하나 있는 작은 마차들이 보이기 시작했다. 陵口[109]를 지나다가 (무덤 앞에 세우는) 커다란 동물 석상이 길 옆에 쓰러져 있는 것을 보았는데, 이미 훼손이 심각한 것으로 보아 아마도 이것은 南朝 시대의 왕릉인 듯하다. 齊 明帝[110] 때 王敬則[111]이 반란을 일으켰다. (그가) 능구에 이르러 (先帝들의 능묘를 보면서) 통곡을 하며 지나갔다고 하는 곳이 바로 여기다. 나는 얼마 전 宋 文帝[112]의 능묘에 간적이 있었는데, 길들은 여전히 매우 널찍하고, 돌기둥과 承露盤[113], 기린과 벽사[114]와 같은 (조형

青, 京口, 呂城 총 네 곳에 부대가 주둔하였다.

108) 京口閘: 지금의 江蘇省 鎭江市에 위치한 水門

109) 陵口: 지금의 江蘇省 丹陽市 남쪽에 해당한다.

110) 齊明帝: 南朝 齊의 제5대 황제인 蕭鸞(452~498). 자는 景栖이고 廟號는 高宗이다. 永明 11년(493) 文惠太子 蕭長懋이 죽자 鬱林王 蕭昭業과 海陵王 蕭昭文을 차례로 제거하고 建武 원년(494)에 스스로 황제의 자리에 올랐다.

111) 王敬則: (435~498). 南朝 臨淮 射陽(지금의江蘇 寶應) 사람이다. 宋 明帝 때 直閣將軍의 자리에 올랐으나 명제가 죽자 蕭道成의 심복이 되어 后廢帝를 살해하고 소도성이 齊를 건국하는 것을 도왔다. 會稽의 太守를 지내다가, 훗날 齊 明帝가 옛 신하들을 의심하여 죽이기 시작하자, 병사를 일으켜 建康으로 진격하였고, 이때 武進을 지나면서 소도성 등 선제들의 무덤에서 통곡을 했다고 한다. 결국 패한 뒤 살해당했다.

112) 宋文帝: 南朝 宋의 제3대 황제인 劉義隆(407~453). 字는 車兒, 廟號는 太祖이다.

113) 承露盤: 하늘에서 내리는 장생불사의 감로수를 받기 위해 만들었다는 쟁반으로 궁전이나 능묘, 원림을 꾸미는 장식물로 많이 쓰였다.

114) 기린과 벽사는 모두 전설 속의 동물로 기린은 상서로움을 상징하고 벽사는 사악함을 물리치는 힘이 있다고 믿어 그 형상을 각종 장식에 자주 사용했다.

물)도 모두 잘 남아 있었으며 기둥에는<太祖 文皇帝의 墓道>라는 여덟 글자가 새겨져있었다. 또 梁 文帝의 능에 간적도 있었으니 문제는 武帝[115]의 아버지다. (그곳) 역시 두 개의 벽사 조형물이 아직 남아있었는데 그중 하나는 넝쿨이 얽혀 있어 마치 몸이 꽁꽁 묶여있는 듯 보였다. 그러나 무덤은 이미 식별을 할 수가 없을 정도였다. 그 옆에는 皇業寺[116]가 있었는데, 史書에서는 대개 皇基寺라고 불리던 곳이다. 아마 唐나라 때 피휘하기 위해 (황업사로) 이름을 바꾼 것 같다.[117] 두 능묘 모두 丹陽[118]에 있었는데 縣에서 30리 정도 떨어져 있었다. 이 고을 선비인 蔣元龍(字는 子雲)이 나에게 "毛達可[119]가 태수로 있을 때 황금으로 된 석류와 능금을 파는 자가 있었는데 그 물건이 훔친 것이라 의심이 되어 그를 붙잡아 보았더니 역시나 梁 (문제의) 능에서 발굴해서 얻은 것들이었다."라 얘기해 주었다. 밤에 단양에 도착했다. (이곳은) 옛날에 曲阿 혹은 雲陽이라고 불리던 곳이다. 謝康樂[120]의 시구에서 '해가 뜰 때 운양을 떠났는데, 해 질 무렵에서야 朱方[121]에 이르렀네.' 라고 한 것이 바로 이곳을 말한다.

十六日早, 發雲陽. 汲玉乳井水, 井在道旁觀音寺, 名列≪水品≫, 色類牛乳, 甘冷熨齒. 井額陳文忠公所作, 堆玉八分也. 寺前又有練光亭, 下闞練湖, 亦佳境. 距官道甚近, 然過客罕至. 是日, 見夜合花方開. 故山開過已月餘, 氣候不齊如此. 過夾岡, 有二石人植立岡上. 俗謂之石翁, 石媼, 其實亦古陵墓前物. 自京口抵錢塘,

115) 梁武帝: 南朝 梁의 초대 황제인 蕭衍(464~549). 字는 叔達이고, 廟號는 高祖다. 무제는 황제의 자리에 오른 후 아버지인 蕭順之를 文皇帝로 추존했다.
116) 皇業寺: 지금의 江蘇省 丹陽市 埤城鎭에 위치한 사찰로 梁 大同 연간(535~545)에 지어졌다.
117) 唐 玄宗 李隆基(685~762)의 이름을 피휘하기 위해 唐朝에 이르러 '基'를 '業'으로 바꾼 것으로 보인다.
118) 丹陽: 治所가 지금의 江蘇省 丹陽市에 있었다.
119) 毛達可: 毛友(1084~1165). 衢州 西安(지금의 浙江 衢州 柯城區) 사람으로 大觀 원년(1107)에 진사가 되어 給事中, 鎭江知府, 處州知府 등을 역임했다.
120) 謝康樂: 謝靈運(385~433). 陳郡 陽夏(지금의 河南 太康) 사람으로 南北朝를 대표하는 시인이자 佛學家이다. 주로 산수자연의 아름다움을 노래해 문학사적으로 큰 의의를 가진다. 인용된 구절은 <廬陵王墓下作>이라는 제목의 시이다.
121) 朱方: 春秋시대 吳나라의 지명으로 治所는 지금의 江蘇省 鎭江市 丹徒區 동남쪽에 있었다.

www.kci.go.kr

梁, 陳以前不通漕, 至隋煬帝始鑿渠八百里, 皆濶十丈, 夾岡如連山, 蓋當時所積之土. 朝廷所以能駐蹕錢塘, 以有此渠耳. 汴與此渠皆假手隋氏, 而爲吾宋之利, 豈亦有數耶? 過新豐小憩, 李太白詩云: <南國新豐酒, 東山小妓歌.> 又, 唐人詩云: <再入新豐市, 猶聞舊酒香.> 皆謂此, 非長安之新豐也. 然長安之新豐, 亦有名酒, 見王摩詰詩. 至今居民市肆頗盛. 夜抵鎭江城外. 是日, 立秋.

(6월) 16일 아침, 雲陽을 출발했다. 玉乳井에서 물을 길었는데 우물은 觀音寺[122] 길가에 있었다. (이곳의 물은) ≪水品≫[123]에도 이름이 올라와 있는데, 물 색깔이 우유와 비슷하며 맛이 달고 시원해서 입안이 상쾌해졌다. 우물의 편액은 陳文忠公[124]이 쓴 것인데, 堆玉八分[125]으로 쓰여 있었다. 절 앞에는 또 練光亭이 있었는데 아래로는 練湖[126]가 내려다 보였으니 역시 절경이 아닐 수가 없었다. 이곳은 官道[127]와 매우 가까웠으나 오가는 사람은 드물었다. 이날 자귀나무 꽃이 막 피는 것을 보았다. 고향에는 이미 자귀나무 꽃이 핀지가 한 달도 더 지났으니 기후가 다름이 이와 같다. 夾岡[128]을 지났는데, 언덕 위에 사람 형상의 석상 두 개가 세워져 있었다. 속칭 돌할아범, 돌할멈이라 부르는데 사실 이것은 오래된 능묘 앞에 (세워졌던) 석상이다. (南朝) 梁나라와 陳나라 이전까지는 京口에서부터 錢塘[129]까지 수로가 개통되지 못했었다. 隋 煬帝[130]에 이르러서 비로소 수로 800리를 파냈으니 그 폭이 모두 열 장(약 33미

---

122) 觀音寺: 丹陽城 북쪽 산 위에 위치한 廣福寺의 옛 명칭이 觀音院이며 속칭 觀音寺로 불리었다. 東晉 시대 때 지어진 사원으로 절 옆에 玉乳井(泉)이 있었다.

123) 水品: 唐 張又新의 ≪煎茶水記≫에 처음 보이며, 陸羽 만년의 작품이라고 전해진다. 이 책에는 차를 끓이기에 좋은 20곳의 물을 소개하고 있는데 丹陽 觀音寺 물이 11번째에 이름을 올리고 있다.

124) 陳文忠公: 陳堯叟(961~1017). 字는 唐夫이고 諡號가 文忠이다. 閬州 閬中(지금의 四川 南充) 사람이다. 端拱 2년(989)에 장원으로 급제하여 工部員外郎, 廣南西路轉運使, 樞密使 등을 역임했다.

125) 堆玉八分: 서체 중 하나인 隸書의 일종으로 方丈字의 특색이 있다. 陳堯叟의 동생인 陳堯佐가 특히 八分書에 능했다고 한다.

126) 練湖: 지금의 江蘇省 丹陽市 서북쪽에 위치한 호수로 練塘 혹은 後湖라고도 불린다.

127) 官道: 관청에서 축조한 큰 도로

128) 夾岡: 지금의 江蘇省 丹陽市에서 북쪽으로 20여리 떨어진 곳이다.

129) 錢塘: 지금의 浙江省 省都인 杭州市에 해당한다.

130) 隋煬帝: 隋의 제2대 황제인 楊廣(569~618). 字는 阿摐, 廟號는 世祖이다.

www.kci.go.kr

터) 정도였다. 협강은 양쪽으로 언덕이 마치 산처럼 이어졌는데 이것은 대부분 (대운하를 파던) 당시 쌓아 올린 흙들이다. 朝廷이 전당에서 잠시 쉬어가게 된 까닭은[131] 바로 이 수로 때문이었다. 汴渠[132]와 이 수로는 모두 隋나라의 손을 빌려 만든 것이나 (마침) 우리 宋나라에게 이로움이 되었으니 어찌 운명이 아니라 할 수 있겠는가? 新豐[133]을 지나며 잠시 쉬었다. 李太白의 시에 이르길 '남쪽 나라 신풍의 술과 동산의 어린 기녀의 노래.'[134]라고 했다. 또 唐代 사람이 '다시 신풍 시가로 들어가니 오래된 술 향기 여전하구나.'[135]라고 한 시도 있는데, 모두 바로 이곳 신풍을 말하는 것이지 長安[136]의 신풍을 말하는 것이 아니다. 그러나 장안의 신풍 역시 술로 이름난 곳으로 王摩詰[137] 시에 보인다. 지금에 이르기까지 주민들의 시장은 매우 번창하였다. 밤에 鎭江[138] 성 밖에 도착했다. 오늘이 입추였다.

十七日, 平旦入鎭江. 泊船西驛, 見知府右朝散郎直秘閣蔡洸子平, 都統慶遠軍節度使成閔, 通判右朝奉大夫章汶, 右朝奉郎陶之眞, 府學教授左文林郎熊克, 總領司乾辦公事右承奉郎史彌正端叔.

(6월) 17일, 새벽녘 鎭江 성안으로 들어갔다. 西驛[139]에다 배를 정박하고, 知府 右朝散郎直秘閣 蔡洸[140], 都統 慶遠軍節度使 成閔[141], 通判 右朝奉大夫

131) 駐蹕은 황제가 행차하는 도중 잠시 쉬어 감을 의미하는 말이다. 南宋의 조정은 錢塘을 臨安이라 칭하여 수도로 삼았지만 이곳은 황제가 임시로 머무는 곳일 뿐 北宋의 수도였던 汴京을 진정한 국도라고 여겼음을 알 수 있다.

132) 汴渠: 隋 煬帝 때 개통된 운하로 黃河와 淮河를 연결해준다. 汴河 또는 通濟渠라고도 부른다.

133) 新豐: 지금의 江蘇省 丹陽市 동북쪽에 위치했던 新豐鎭을 이른다.

134) 李太白은 李白(701~762)을 말하며 인용된 구절은 <出妓金陵子呈盧六> 四首 중 두 번째 시이다.

135) <丹陽作>이라는 제목의 시로 작자는 陳存이라는 설과 朱彬이라는 설이 있다.

136) 長安: 지금의 陝西省 省都인 西安市에 해당한다.

137) 王摩詰: 王維(701?~761). 河東 蒲州(지금의 山西 運城) 사람으로 唐代의 시인이자 화가이다. 그의 작품 <少年行> 四首 중 첫 번째 시에 長安 新豐의 술에 대한 구절이 나온다.

138) 鎭江: 府名으로 治所는 丹徒(지금의 江蘇 鎭江 丹徒)에 있었다.

139) 西驛: 西津(지금의 鎭江市 서쪽 雲臺山 기슭. 蒜山 기슭이라고도 함)에 있었던 역관

140) 蔡洸: 字는 子平이며 興化 仙游(지금의 福建 莆田) 사람이다. 吉州知府, 鎭江知府, 戶部尙

www.kci.go.kr

章汶, 右朝奉郎 陶之眞, 府學敎授 左文林郎 熊克[142], 總領司乾辦公事 右承奉郎 史彌正[143]을 만났다.

十八日, 右奉議郎簽書節度判官廳公事葛郇, 觀察推官右文林郎徐務滋, 司戶參軍左迪功郎楊冲, 焦山長老定圜, 甘露長老化昭來.

(6월) 18일, 右奉議郎 簽書節度判官廳公事 葛郇, 觀察推官 右文林郎 徐務滋, 司戶參軍 左迪功郎 楊冲[144], 焦山[145]의 長老[146] 定圜, 甘露寺[147]의 장로 化昭가 찾아왔다.

十九日, 金山長老寶印來, 字坦叔, 嘉州人. 言自峽州以西, 灘不可勝計, 白傅詩所謂<白狗到黃牛, 灘如竹節稠>是也. 赴蔡守飯於丹陽樓, 熱特甚, 堆冰滿坐, 了無凉意. 蔡自點茶頗工, 而茶殊下. 同坐熊敎授, 建寧人, 云建茶舊雜以米粉, 復更以薯蕷. 兩年來, 又更以楮芽, 與茶味頗相入, 且多乳, 惟過梅則無復氣味矣, 非精識者未易察也. 申後, 移舟出三閘, 至潮閘而止.

(6월) 19일, 金山[148]의 장로 寶印이 찾아왔는데, 그는 字가 坦叔이고 嘉州[149] 사람이다. 그가 말하기를 峽州[150]의 서쪽으로 (長江에는) 여울이 셀 수 없이 많은데, 白傅가 시에서 '白狗峽에서 黃牛峽에 이르기까지 여울이 대나무

書 등을 역임했다.

141) 成閔: (1094~1174). 字는 子琼 혹은 居仁이며 邢州(지금의 河北 邢臺) 사람이다. 慶遠軍節度使, 淮北制置使, 太尉 등을 역임했다.

142) 熊克: (1132~1204). 字는 子復으로 建陽(지금의 福建 南平) 사람이다. 府學敎授, 秘書郎, 起居郎兼直學士 등을 역임했다.

143) 史彌正: 字는 端叔으로 鄞縣(지금의 浙江 寧波) 사람이다. 朝奉大夫, 浙東提刑, 敷文閣待制 등을 지냈다.

144) 楊冲: 字는 飛卿으로 福州(지금의 福建 福州) 사람이다. 國子錄, 宣敎郎, 寧國府簽判을 역임했다.

145) 焦山: 지금의 江蘇省 鎭江市 동북쪽 長江에 있는 섬으로 定慧寺, 華嚴寺, 三詔寺 등 명소가 많다.

146) 長老: 학식과 덕이 높고 나이가 많은 승려 혹은 절의 주지승을 이르는 말

147) 甘露: 鎭江市 동북쪽에 위치한 北固山에 지어진 甘露寺를 말한다.

148) 金山: 지금의 鎭江市 서북쪽에 있으며 氐父山, 金鼇岭, 浮玉山으로 불리기도 했다.

149) 嘉州: 지금의 四川省 樂山市 일대에 해당한다.

150) 峽州: 治所가 夷陵(지금의 湖北 宜昌)에 있었다.

마디만큼이나 많구나.'[151]라 말한 것이 바로 이를 (묘사한 것)이라 했다. 태수 蔡洸과 丹陽樓로 식사를 하러 갔는데 날씨가 몹시 더웠다. 좌석에 얼음을 가득 쌓았으나 시원함이 전혀 느껴지지 않았다. 채광이 직접 차를 끓였는데 솜씨는 좋았지만 차 맛은 너무 떨어졌다. 함께 있던 建寧[152] 사람인 熊 教授가 말하길 '建茶[153]는 옛날에는 쌀가루와 섞어 만들었는데, 이후 다시 마로 바꾸어 (차를 만들었다). 2년 전 부터는 또 닥나무 싹으로 바꾸어 (섞기 시작했더니 향이) 차 맛에 꽤 어우러질 뿐만 아니라 흰 거품도 많이 생겼다. 다만 장마철이 지나면 향이 사라지지만 전문가가 아니고서야 쉽게 알아채지는 못한다.'라고 했다. 申時(오후 3시~5시)가 지난 후 배를 이동시켜 수문 세 개를 다 지나서 潮閘[154]에 이르렀을 때 멈추었다.

二十日. 遷入嘉州王知義船, 微雨極凉.

(6월) 20일, 嘉州 사람인 王知義의 배로 옮겨 탔다. 가랑비가 내려 매우 시원해졌다.

二十一日.

(6월) 21일.

二十二日, 郡集衛公堂後圃, 比舊唯增染香亭, 飮半, 登壽丘普照寺, 終宴. 壽丘者, 宋高祖宅, 有故井尙存. 寺本名延慶, 隆興中復泗州, 有普照寺僧奉僧伽像來歸, 寓焉. 因賜名普照寺, 僑置僧伽道場. 東望京山, 連亘抱合, 勢如繚墻, 官寺, 樓觀如畵. 西闞大江, 氣象極雄偉也.

(6월) 22일, 衛公堂[155] 뒤뜰에서 관원들의 연회가 있었는데, (내가 이곳에

151) 白傅는 白居易(772~846)를 말하며 인용된 구절은 그의 시 <發白狗峽次黃牛峽登高寺却望忠州>이다.
152) 建寧: 府名으로 治所는 建安(지금의 福建 建甌)에 있었다.
153) 建茶: 福建省 建州와 建安 일대에서 생산되는 차
154) 潮閘: 운하와 長江이 서로 연결되는 수문의 입구
155) 衛公堂: 唐代 李靖과 李德孺가 모두 衛公이라고 불렸는데, 여기에서는 이덕유가 지은 당

www.kci.go.kr

재직하던) 예전과 비교하니 다만 染香亭만이 증축되어 있었다. 술을 반 정도 마시고 壽丘 普照寺에 오르느라 연회를 끝냈다. 수구는 宋 高祖[156]의 집인데 아직도 옛 우물이 남아있다. 절의 본래 명칭은 延慶寺였으나 隆興 연간(1163~1164) 泗州[157]를 수복했을 때 普照寺[158]라는 절의 승려가 僧伽[159]의 불상을 받들고 돌아와 이곳에 안치하였다. 이 때문에 '普照寺'라는 이름을 하사받고 승가의 道場을 (이곳으로) 僑置[160]하게 된 것이다. 동쪽으로 바라보이는 京山[161]은 서로 껴안은 듯 이어져 있어 마치 집을 둘러 싼 담의 형세를 하고 있었고 관아와 누각들이 마치 그림처럼 보였다. 서쪽으로는 長江이 바라보였는데 그 기상이 매우 웅대했다.

二十三日, 至甘露寺飯僧. 甘露, 盖北固山也. 有狠石, 世傳以爲漢昭烈, 吳大帝嘗據此石共謀曹氏. 石亡已久, 寺僧輒取一石充數, 游客摩挲太息, 僧及童子輩往往竊笑也. 拜李文饒祠. 登多景樓, 樓亦非故址, 主僧化昭所築. 下臨大江, 淮南草木可數, 登覽之勝實過於舊. 邂逅左迪功郎新太平州教授徐容, 容字子公, 泉州人. 此山多峭崖如削, 然皆土也. 國史以爲石壁峭絶, 誤矣.

(6월) 23일, 甘露寺에 가서 승려들에게 식사를 대접했다. 감로사는 北固山 위에 있다. (절에는) 양 모양을 한 돌이 있는데 세상에 전하기로는 漢 昭烈[162]과 吳 大帝[163]가 일찍이 이 돌에서 曹操에 (대한 대책을) 공모했다고 한다. 돌은 이미 오래전에 없어졌으나 감로사의 승려가 아무 돌 하나를 주어서 대신

으로 추정된다.

156) 宋高祖: 南朝 宋의 제1대 황제인 劉裕(363~422). 諡號는 武帝, 廟號는 高祖이다.

157) 泗州: 治所는 臨淮(지금의 江蘇 盱眙 서북쪽)에 있었다.

158) 普照寺: 옛날에 ≪古香積寺銘記≫와 금으로 된 僧伽의 불상이 이곳에서 나왔는데 그 위에 '普照王佛'이라고 쓰여 있었다. 그래서 절을 세워 그것을 모셨다.

159) 僧伽: (628~710). 唐代 西域 출신의 승려로 俗姓은 何이며 泗州大聖, 大聖菩薩 등으로 불리었다.

160) 僑置: 적국에 의해 함락된 지명을 그대로 가져와 현재 자국의 수중에 있는 지역에 이름 붙이는 것을 말한다.

161) 京山: 鎭江市 동남부에 위치한 京峴山을 말한다. 京口의 지명이 여기에서 기인했다.

162) 昭烈: 三國時代 蜀漢의 개국 황제인 劉備(161~223)의 諡號

163) 大帝: 三國時代 東吳의 개국 황제인 孫權(182~252)의 諡號

www.kci.go.kr

(그 자리에) 두었더니 여행객들이 손으로 (그 돌을) 어루만지며 탄식을 했고 승려와 동자들은 종종 (그 모습을 보고) 몰래 비웃는다. 李文饒[164]의 사당을 참배했다. 多景樓에 올랐는데 이 누각 역시 옛터에 그대로 남아있는 것이 아니라 주지승인 化昭가 지은 것이다. 아래로는 長江과 맞닿아 있고 (저 멀리) 淮南[165]의 초목들이 똑똑히 바라보여 실로 예전보다 (다경루의) 전망이 훨씬 아름다웠다. 우연히 새로 부임한 太平州教授 左迪功郎 徐容을 만났다. 서용의 字는 子公이고 泉州[166] 사람이다. 북고산은 마치 칼날같이 가파른 벼랑이 많으나 모두 흙으로 이루어진 산이다. 역사서에는 돌로 된 절벽들이 깎아지듯 치솟아 있다고 하였는데 이는 잘못된 것이다.

二十四日.

(6월) 24일.

二十五日早, 以一稀壺酒, 謁英靈助順王祠, 所謂下元水府也. 祠屬金山寺, 寺常以二僧守之, 無他祝史. 然牓云, 賽祭猪頭, 例歸本廟, 觀者無不笑. 初, 紹興末, 完顔亮入寇, 樞密葉公審言督視大軍守江, 禱於水府祠, 請事平奏加帝號, 旣而不果. 隆興中, 敵再入, 有近臣申言之. 議者謂<四瀆止封王, 水府不應在四瀆上>, 乃但加美稱而已. 廟中遇武人王秀, 自言博州人, 年五十一. 完顔亮寇邊時, 自河朔從義軍攻下大名, 以待王師. 旣歸朝, 不見錄. 且自言孤遠, 無路自通, 歔欷不已. 是晩, 欲出江, 舟人辭以潮不應, 遂宿江口.

(6월) 25일 아침, 돼지고기와 술 한 병을 가지고 英靈助順王의 사당에 참배를 했는데 (영령조순왕은) 소위 下元水府[167]라고도 한다. 사당은 金山寺[168]

164) 李文饒: 李德裕(787~850). 趙郡 贊皇(지금의 河北 贊皇) 사람으로 唐代 치열했던 牛李黨爭 중 李黨의 영수였다. 翰林學士, 浙西觀察使, 西川節度使, 兵部尙書, 宰相 등을 지냈다.

165) 淮南: 淮河의 이남, 長江의 북쪽 지방을 일컫는다.

166) 泉州: 治所는 晉江(지금의 福建 泉州)에 있었다.

167) 下元水府: 水府는 水神의 廟를 말한다. 南唐 때 封號를 金山廟水神을 下元水府鎭江王으로 봉하고 제사를 지냈다. 이후 南宋 眞宗 때 남당에서 내린 호를 없애고 昭信泰江王으로 봉했으나 高宗 때 다시 順濟英惠昭信泰江王에 봉했다. 英靈助順王은 孝宗 隆興 연간에 하

www.kci.go.kr

의 관할이어서 항상 승려 두 명이 이 사당을 지키지만 따로 제사를 주관하는 사람은 없었다. 그러나 榜에는 '돼지머리에다 제사를 지내면 (그 기원의 뜻이) 모두 이 사당으로 돌아오게 된다.'라고 쓰여 있으니 이를 보고 웃지 않는 사람이 없었다. 원래 紹興 연간(1131~1162) 말에 完顏亮[169]이 침입을 했을 때 知樞密院事 葉公[170]이 군사를 통솔하여 長江을 방어하게 되었었다. 엽공은 (장강을 지키는) 水神의 사당(水府祠)에 기도를 올리고, 또한 수신을 帝王으로 봉해야한다고 상주를 올렸으나 곧 이루어지지 못했다. 隆興 연간에(1163~1164)에 적이 다시 쳐들어오자 (수신을 제왕으로 봉하는 것)을 다시 언급하는 신하들이 있었다. (그러나 그중) '四瀆[171]이 단지 王으로 봉해져 있으므로 수신을 사독 보다 높은 (제왕의) 지위로 두어서는 안 된다.'라고 논하는 사람이 있어, 이에 (수신에게는) 다만 미칭을 더해주었을 뿐이다. 사당 안에서 王秀라는 병사를 만났는데 자신은 博州[172] 사람이고 나이가 51세라고 했다. (그는) 완안량이 변경을 침범했을 때 黃河의 북쪽에서 의병을 따라와 大名[173]을 함락시켜 국군으로써의 대우를 받게 되었으며 곧 조정에 귀부하였으나 봉록을 받지는 못했다고 했다. 또한 자신은 (조정에서) 멀어지고 미천한 몸이라 스스로 어찌 할 방도가 없으니 슬퍼서 울음이 그치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날 밤 강을 벗어나려 했으나 뱃사람이 潮水 때문에 그럴 수 없다고 거절하여 결국 강어귀에서 숙박을 했다.

二十六日, 五鼓發船. 是日, 舟人始伐鼓. 遂游金山, 登玉鑑堂, 妙高臺, 皆窮極壯麗非昔比. 玉鑑, 蓋取蘇儀甫詩云<僧於玉鑑光中坐, 客蹋金鼇背上行>, 儀甫果

사 받은 號이다.

168) 金山寺: 金山에 있는 사찰로 東晉에 처음 세워졌다. 원래는 澤心寺라고 불렀으나 唐代에 이곳에서 금을 채굴하면서 金山寺라 불리게 되었다.

169) 完顏亮: (1122~1161). 金의 제 4대 황제로 字는 元功이고 諡號는 海陵煬王이다.

170) 葉公: 葉義問(1098~1170). 字는 審言이며 嚴州 壽昌(지금의 浙江 建德) 사람이다. 建炎 2년(1128)에 진사가 되어 吏部侍郎, 資政殿學士, 江州通判 등을 역임했다.

171) 四瀆: 長江, 黃河, 淮河, 濟河. 瀆이라는 것은 맞바로 바다로 흘러나가는 강을 이른다.

172) 博州: 治所는 지금의 山東省 聊城市에 있었다.

173) 大名: 治所는 지금의 河北省 邯鄲市 大名縣에 있었다.

終於翰苑, 當時以爲詩讖. 新作寺門亦甚雄, 翟耆年伯壽篆額. 然門乃不可泊舟, 凡至寺中者, 皆由雄跨閣. 長老寶印言, 舊額仁宗皇帝御飛白, 張之則風波洶涌, 蛟鼉出沒, 遂藏之寺閣, 今不復存矣. 印住山近十年, 興造皆其力. 寺有兩塔, 本曾子宣丞相用西府俸所建, 以薦其先者. 政和中, 寺爲神霄宮, 道士乃去塔上相輪而屋之, 謂之鬱羅霄臺. 至是五十餘年, 印始復爲塔, 且增飾之, 工尙未畢. 山絶頂有呑海亭, 取氣呑巨海之意, 登望尤勝. 每北使來聘, 例延至此亭烹茶. 金山與焦山相望, 皆名藍, 每爭雄長. 焦山舊有吸江亭, 最爲佳處, 故此名呑海以勝之. 可笑也. 夜, 風水薄船, 鞺鞳有聲.

(6월) 26일, 五更(새벽3시~5시)에 배를 출발시켰다. 이날 뱃사람이 북을 치기 시작했다. 마침내 金山을 유람하게 되어 玉鑑堂과 妙高臺에 올랐는데 모두 지극히 웅장하고 아름다워 예전과 비교할 수 없었다. 玉鑑이라는 이름은 蘇儀甫[174]의 시 중 '승려는 빛나는 옥거울 속에 앉아 있고, 나그네는 금빛 거북이 등 위를 밟고 올라가네.'라고 한 것에서 따온 듯하다. 소의보가 과연 결국 翰林學士가 되자 당시 사람들은 이 시의 내용대로 그의 운명이 들어맞게 된 것이라고 생각했다.[175] 새로 만든 金山寺의 문 또한 매우 웅장했으며 翟耆年[176]이 篆字體로 쓴 현판이 걸려 있었다. 그러나 사찰의 문으로 (들어가) 배를 정박할 수는 없어서 이곳에 오려는 모든 배는 雄跨閣[177]을 통해야만 했다. 장로 寶印이 말하기를 예전의 현판은 仁宗[178] 황제가 飛白[179] 서체로 쓴 것이었는데 그것을 걸어두자 풍파가 거세게 몰아치고 사나운 악어들이 출몰하여

174) 蘇儀甫: 蘇紳(999~1046). 泉州 晉江(지금의 福建 泉州) 사람으로 天禧 3년(1019)에 진사가 되어 太常博士, 禮部郎中, 翰林學士 등을 역임했다. 인용된 구절은 <金山寺>라는 시이다.

175) 부귀함을 상징하는 신화 속 동물 金鼇를 밟고 올라간다는 것은 곧 높은 관직에 오른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 시는 蘇紳이 과거에 막 합격했을 때 쓴 것인데, 당시 사람들은 소신이 아직 자신의 관직생활이 어떻게 펼쳐질지 모를 때 그 미래를 예언한 것이라 여겼다.

176) 翟耆年: 字는 伯壽로 潤州 丹陽(지금의 江蘇 鎭江) 사람이다. 스스로 관리 생활에 적합하지 않다 생각하여 산수를 유람하며 글을 짓는데 전념했으며 篆書와 隸書에 능했다.

177) 雄跨閣: 일설에는 雄跨亭이라고 한다.

178) 仁宗: 宋의 제4대 황제인 趙禎(1010~1063). 諡號는 體天法道極功全德神文聖武睿哲明孝皇帝이다.

179) 飛白: 蔡邕이 창안했다고 전해지는 書體의 하나로 먹을 적게 사용해 붓 자국에 흰 잔 줄이 생기며 필세가 飛動한다 하여 붙여진 이름이다.

www.kci.go.kr

(현판을) 절 안에 있는 누각에 숨겨두게 되었으며 지금은 (현판이)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다고 했다. 보인은 금산에서 근 10년간 살면서 (금산사)의 재건을 모두 그의 힘으로 이루어 냈다. 절에는 탑이 두 개 있는데 원래는 승상 曾子宣[180]이 樞密院에서 일할 때 세운 것으로 그의 선조를 추모하기 위함이었다. 政和 연간(1111~ 1118)에 절을 (도교 사원인) 神霄宮으로 개축하게 되었는데 이에 道士가 탑 위의 상륜부를 없애고 (그 부위를) 막아 두고서는 이 탑을 鬱羅霄臺라고 불렀다. 50여 년이 흐른 지금에 이르러 보인이 비로소 탑을 복원하고 또 그것을 장식하고 있는데 아직 작업을 다 마치지는 않았다. 금산 정상에는 呑海亭이 있는데 기개가 거대한 바다를 삼키는 듯 하는 뜻에서 지어진 이름으로 전망이 매우 아름답다. 매번 북에서 사신이 방문을 하면 관례에 따라 이 정자로 초대하여 차를 끓여 대접했다. 금산은 焦山과 서로 마주보고 있는데, (두 산) 모두 유명한 사찰이 있어 매번 패권을 다투었다. 초산에서는 예로부터 吸江亭이 가장 아름다운 곳으로 여겨졌다. 따라서 ('바다를 삼키다'라는 뜻의) 呑海라는 이름으로 ('강을 들이마시다'라는 뜻의 吸江을) 이기게 되었으니 참으로 재미있다. 밤에 바람이 부니 강물이 배를 쳐서 둥둥하는 소리가 났다.

二十七日, 留金山, 極凉冷. 印老言, 蜀中梁山軍鷺鷥, 爲天下第一.

(6월) 27일, 金山에 머물렀는데 날이 몹시 추웠다. 장로 寶印이 蜀 지방 梁山軍[181]에 서식하는 백로가 천하제일이라고 말했다.

二十八日, 夙興, 觀日出, 江中天水皆赤, 眞偉觀也. 因登雄跨閣觀二島, 左曰鶻山, 舊傳有棲鶻, 今無有. 右曰雲根島, 皆特起不附山, 俗謂之郭璞墓. 奉使金國, 起居郎范至能至山, 遣人相招, 食於玉鑑堂. 至能名成大, 聖政所同官, 相別八年, 今借資政殿大學士, 提擧萬壽觀, 侍讀, 爲金國祈請使云. 午間, 過瓜洲, 江平如鏡. 舟中望金山, 樓觀重復, 尤爲鉅麗. 中流, 風雷大作, 電影騰掣, 正在江面, 去舟財

www.kci.go.kr

180) 曾子宣: 曾布(1036~1107). 南豐(지금의 江西) 사람으로 曾鞏의 동생이다. 嘉祐 2년(1057)에 진사가 되어 이후 太子中允, 知制誥, 翰林學士, 三司使, 中書侍郎 등을 역임했다.
181) 梁山軍: 治所는 지금의 重慶市 梁平縣에 있었다. 蜀은 지금의 四川省 일대를 말한다.

丈餘, 急繫纜. 俄而開霽, 遂至瓜洲. 自到京口無蚊, 是夜蚊多, 始復設幮.

(6월) 28일, 아침에 일찍 일어나 일출을 보았는데 강물과 하늘이 모두 붉게 물들어 있는 것이 참으로 장관이었다. 곧 雄跨閣에 올라 섬 두 곳을 바라보았다. 왼쪽 섬은 鶻山이라고 하는데 예로부터 전해지기로 송골매가 서식했었다고 하나 지금은 없다. 오른쪽 섬은 雲根島라고 하는데 모두 (강 가운데) 우뚝 솟아 있고 金山과 맞닿아 있지 않았다. (이 섬은) 속칭 郭璞[182]의 무덤이라고도 부른다. 金나라에 奉命使臣으로 가는 起居郎 范至能[183]이 금산에 이르렀다기에 사람을 보내 그를 玉鑑堂으로 초대하여 식사를 대접했다. 지능의 이름은 成大로 나와 聖政所[184]에서 함께 일했는데 서로 못 본지 8년이나 되었다. (그는) 지금 임시 資政殿大學士이자 提擧萬壽觀, 그리고 侍讀의 자리에 올라 금나라에 祈請使로 파견되었다고 한다. 정오에 瓜洲[185]를 지났는데 강물이 거울과 같이 잔잔했다. 배 안에서 저 멀리 금산을 바라보니 (여러) 누각들이 겹쳐져 보여 더욱 웅장하고 화려했다. 강 중류쯤 이르자 큰 폭풍우가 몰아쳐서 번개가 (강물 위를) 쏜살같이 달리는 듯 비추었다. (번개가 치는) 수면에서 배와 떨어진 거리가 고작 한 장 정도가 되자 급히 배의 밧줄을 맸다. 곧 날이 개이더니 마침내 과주에 이르렀다. 京口에 도착한 이후로 모기가 없었는데 이날 밤에는 모기가 많아서 다시 모기장을 치기 시작했다.

二十九日, 泊瓜洲. 天氣澄爽, 南望京口月觀, 甘露寺, 水府廟皆至近. 金山尤近, 可辨人眉目也. 然江不可橫絶, 放舟而稍西乃能達, 故渡者皆遲回久之. 舟人以帆弊, 往姑蘇買帆, 是日方至. 【檣高五丈六尺, 帆二十六幅.】兩日間, 閱往來渡者無慮千人, 大抵多軍人也. 夜, 觀金山塔燈.

---

182) 郭璞: (276~324) 河東 聞喜(지금의 山西) 사람으로 字는 景純이다. 兩晉 시기의 유명한 문학가이며 훈고학과 풍수학에도 뛰어났다.

183) 范至能: 范成大(1126~1193). 平江 吳郡(지금의 江蘇 蘇州) 사람으로 紹興 24년(1154年)에 진사가 되었다. 乾道 6년(1170)에 金에 使臣으로 파견되었으며 이후 中書舍人, 參知政事, 資政殿大學士 등의 관직을 역임했다.

184) 聖政所: 編類聖政所의 줄임말로, 勅令所라고도 한다. 高宗 建炎, 紹興 연간에 반포한 號曆과 政事 및 北宋 元祐 이래 忠臣과 義士들의 전기를 편찬하는 것을 담당했다.

185) 瓜洲: 지금의 江蘇省 揚州市 邗江區에 해당한다.

www.kci.go.kr

(6월) 29일, 瓜洲에 정박했다. 날씨가 맑고 상쾌하여 남쪽을 바라보니 京口의 月觀[186]과 甘露寺, 水府廟 모두가 가까이에 있는 듯 했다. 특히 金山은 가까워서 (그곳) 사람들의 눈과 눈썹을 변별할 수 있을 정도였다. 그러나 강을 (일직선으로) 가로 건널 수 없어 배를 몰아 서쪽으로 조금 이동한 후에 (맞은편으로) 건너서 도착할 수 있었다. 고로 강을 건너려는 사람은 모두 우회하여 (시간이) 오래 걸렸다. 배의 돛이 낡아서 뱃사람이 姑蘇[187]로 돛을 사러 갔다가 오늘에서야 비로소 돌아왔다. 【돛대는 높이가 5장 6척이고 돛은 26폭이다.】 이틀 동안 강을 건너 왕래하는 사람을 살펴보았더니 대략 천명 정도였고 대체로 군인이 많았다. 밤에 금산의 탑에 등이 켜진 것을 구경했다.

4. 결론

송대의 기행문은 이전시기의 다양한 글쓰기를 융합하고 새로운 형태로 분화해 나가 후대 및 한국의 기행문 글쓰기에 영향을 끼친 중요한 작품임에도 불구하고 현재까지 한국은 물론 중국의 학계에서도 제대로 조명 받지 못한 연구영역이다. 중국에서 연구되어지는 소수의 작품 역시 심미적인 관점에서의 고찰이 대부분을 차지하여 기행문이 탄생하게 된 사회・문화적 배경이나 시대적인 의의 등은 제대로 연구되지 못한 경우가 많다. 한국의 학계에서는 송대 기행문의 대표작이라 할 수 있는 ≪입촉기≫마저 번역이 미완성에 그치고 있다. 이에 필자는 그 공백을 시급히 메우고자 총 6권으로 이루어진 ≪입촉기≫ 중 권1에 해당하는 내용을 번역했다. 앞으로 남은 권2~권6의 내용 역시 번역 및 주석 작업을 이어나가 송대 기행문에 대한 이해를 돕고자 한다.

www.kci.go.kr

186) 月觀: 万歲樓라고도 불린다. 東晋 王恭이 지은 것이라 전해지며 지금의 江蘇省 鎭江市에 있다.
187) 姑蘇: 지금의 江蘇省 蘇州市를 이르는 별칭

< 參考文獻 >

上海師范大學古籍整理研究所 編 , ≪全宋筆記≫ 第五編八, 鄭州: 大象出版社, 2012.
柴舟 校注, ≪入蜀記 老學庵筆記≫, 上海: 上海遠東出版社, 1996.
蔣方 著, ≪入蜀記校注≫, 武漢: 湖北人民出版社, 2005.
錢仲聯, 馬亞中 主編, ≪入蜀記校注≫ 杭州: 浙江古籍出版社, 2016.
黃立新, 劉蘊之 編注, ≪入蜀記約注≫, 北京: 中國文聯出版社, 2004.

< Abstract >

Translations and Annotations of ≪Rushuji≫(1)

Lee, Eunjin

Lu You departed from his home, Yue-Zhou Shanyin-Xian, on the evening of 18 May 1170 and arrived at his new post, Kui-Zhou, early in the morning on 27 May. He sailed upstream Chang-jiang for 158 days and recorded his journey everyday even though it wasa bumpy road. He put down every events in detail like where he had stopped by, whom he had met there, what he had seen, the history and the character of area where he passed by. And he described a little pieces of daily life and his feelings as well. ≪Rushuji≫ is considered as representative travel notes in Song Dynasty along with ≪Wuchuanlu≫ by Fan chengda. While two different translations of ≪Wuchuanlu≫ have been published till now in Korea, with ≪Rushuji≫ it has not done a complete work. Just some part of it has been translated occasionally so that it's difficult to see over the whole story. Therefore I tried to make a translation and a annotation of ≪Rushuji≫'s 1st chapter as a steppingstone for study on chinese travel notes. And after this I will translate the rest, from 2nd to 6th chapter in serial.

www.kci.go.kr

Key words: Rushuji, Lu You, travel notes, Southern Song dynasty, Biji

원고접수일	심사일정	1차수정	게재확정	출간
2019. 4. 30	2019. 5. 10	2019. 5. 20	2019. 5. 22	2019. 6. 30

www.kci.go.kr